Korea's Leading Think Tank KDI

2011. 10. 6.

보 도 자 료

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KDI 홍보팀
TEL 02) 958-4030 FAX 02) 960-0652 E-mail press@kdi.re.kr

G20 국제회의
「세계경제위기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, 그리고 G20의 역할」

G20 Conference on
Enhancing Global Governance and Development and the Role of the G20

- 일 시: 2011년 10월 6일(목) 09:00~17:30
- 장 소: 신라호텔 영빈관 1층 토파즈홀

세션별 주요 논의 사항 요약

세션4. 글로벌 협력과 G20 개발 아젠다

[산제이 프라단 세계은행 부총재]

□ 향후 한국정부가 세울 G20센터는 G20국가그룹과 G187국가그룹(전세계 모든 개도국) 간 개발경험 공유라는 새로운 차원의 개발의제에 있어서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.

○ 근래 전통적인 개발 방식, 즉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금융자원과 개발관련 지식이 이동하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.

- 금융자원과 개발관련 지식이 이제는 개도국에서 개도국으로, BRIC's 등 중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이동하고 있음.

- 즉, 한국, BRICS 등 새로운 참여자들이 전 세계 개발 의제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.

○ 이와 같이 변화하는 전 세계 개발 파트너십 하에서 한국은 G20국가그룹과 비G20국가그룹 간 개발관련 지식의 공유 및 흐름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.

- 작년 '서울 개발합의(Seoul Development Consensus)'라고 하는 개발 의제를 G20 국가의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만듦.

- 한국은 불과 50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 저개발국가에서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매우 흥미로운 발전경로를 가짐.

[이창용 아시아개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]

□ ‘서울 개발합의(Seoul Development Consensus)’는 G20 국가그룹과 비G20 국가그룹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고리로 제안되었음.

□ 작년 ‘서울 개발합의(Seoul Development Consensus)’ 준비 단계에서 아프리카, 아시아 등 광범위한 개도국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수요를 청취한 결과, 저개발국들 및 개도국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금융자원이 아니라 한국과 같은 나라의 개발 성공 경험과 한국 정부의 인프라 구축 경험이었음. 저개발국들 및 개도국들의 이러한 수요를 종합해서 탄생한 것이 ‘서울 개발합의(Seoul Development Consensus)’ 임.

○ 현재 의장국인 프랑스는 ‘서울 개발합의(Seoul Development Consensus)’의 9개 요소 중 인프라를 포함한 2개 요소를 선택해서 집중하고 있음.

○ 이는 소수의 아젠다에 집중해서 성공 사례를 구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.

□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소위 MDB(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)들은 G20 개발의제의 집행과 확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.

○ 특히 저개발국 관련 개발 의제는 양자 관계가 매우 비효율적인데, 이 경우 MDB들이 다자간 플랫폼을 통해 개발 의제의 집행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.

[앤 이자벨 디그라시 블라토 UNDP 서울정책센터 대표]

□ **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 하에서 G20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.**

○ 현재 전세계 다수의 저개발국 및 개도국은 G20 개발의제와 UN 간 긴밀한 연결 고리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.

- 28개 UN 회원국들(중소규모 저개발국들 및 개도국들)로 구성된 'Global Governance Group'(3G)은 G20 국가그룹과 UN 회워국들 간 정기적인 개발 의제 관련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.

- G20 정상회의 및 그 준비회의들에 UN 사무총장 및 관련 UN 책임자들이 참석해서 개발 의제를 협의하는 것은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같이 강조하고 있음.

○ UN 뿐만 아니라 BWI, WTO, UNCTAD 등 개발 의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다른 개발 국제기구들과도 G20은 투명한 의제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저개발국들 및 개도국들이 강조하고 있음.